

유혹을 이기는 '함께하심'의 능력

본문: 창세기 39:7-18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ive/MrqD3wm4wdk?si=bISxK8hIcck5dPgI> (주소 클릭-> 열기 클릭)

[새벽 말씀 묵상]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유혹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아니라, 고난이 지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 안락함을 누리던 요셉에게 주인의 아내가 은밀한 죄를 집요하게 요구한 것처럼, 내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다고 느낄 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한순간 눈만 딱 감으면 훨씬 더 큰 안락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요셉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비결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라는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임마누엘'의 믿음,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선택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그를 지켜낸 것입니다.

음행과 정욕의 집요한 유혹 앞에서는 머뭇거리지 말고, 세상의 안락함이 보장된 겉옷을 미련 없이 벗어 던지며 죄의 자리를 박차고 도망쳐야 합니다. 비록 거룩을 선택한 대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훔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비전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수치의 옷을 벗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안락한 겉옷을 포기하더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은밀한 유혹을 단호히 이겨내는 거룩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관찰]

1.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하기를 청하며 유혹할 때, 요셉은 누구에게 죄를 지을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합니까? (창 39:9)
2. 주인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요셉의 옷을 잡고 강권할 때, 요셉은 옷을 어떻게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까? (창 39:12)

[삶의 적용]

1. 내 삶이 어느 정도 평안하고 안정되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나를 유혹하는 은밀하고 달콤한 타협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2. 세상이 주는 안락함 대신 '코람데오(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오늘 내가 미련 없이 겉옷을 던져버리고 박차고 나와야 할 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의 기도]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식하며,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단호히 박차고 나와 코람데오의 거룩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